

둔성발정 (鈍性發情)

발정징후가 미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비(過肥)된 암퇘지에서,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며 때로는 교배를 허용하여 수태되기도 한다.

지속성발정 (持續性發情)

발정징후를 나타내면서도 교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수태지를 교체하여 교배시키거나, 강제교배 또는 인공수정을 실시하면 수태시킬 수도 있다.

임신발정 (妊娠發情)

교배를 허용하여 수태된 암퇘지가 교배후 발정에정일에 1~2일간 경미한 발정징후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하며, 발정징후가 재빨리 사라지고 수태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유후 발정개귀 (離乳後 發情再歸)

젖뎌 어미퇘지에서 또 다시 발정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유후 발정재귀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체에 따라 또는 사양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유후 4~5일에 70%, 10일까지는 95%의 어미퇘지에서 발정이 재귀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유후 발정재귀가 늦어지면 분만간격(分婁間隔)이 지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퇘지의 번식주기(繁殖週期)가 연장된다.

이유후 발정재귀가 지연되는 예는 더운 여름철에 자주 나타난다. 이는 어미퇘지가 더위에 시달려 식욕이 감퇴됨으로써 사료섭취량이 감소되어 영양상태가 불량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알기 쉬운 양돈 전문용어 풀이(6)

- 번식 -



나진수
(전남대 농대 교수)

발정동기화 (發情同期化)

발정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암퇘지에서 거의 동시에 발정을 유기(誘起)하는 계획번식기술을 가르키며 실용적으로 많은 잇점이 뒤따른다. 즉 발정이 동시에 발현됨으로써 발정의 확인 및 교배관리가 용이해지고 동시에 교배가 실시됨에 따라 분만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새끼퇘지의 계획생산이 가능해지며 사양관리가 단순화 되고 경영이 개선된다.

사양관리에 의하여 발정을 동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미경산돈은 종모돈(種牡豚)의 돈방(豚房)과 인접한 돈방에 집단수용하면 초발정(初發情)이 동기화 될 수 있으며, 경산돈에서는 분만후 이유를 동시에 실



시하면 거의 동시에 발정이 재귀된다고 한다.

근래에는 약물투여에 의한 발정동기화 방법이 개발되어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호르몬 또는 황체퇴행제(黃體退行劑)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보다 실용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방법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교배(交配)

수태를 목적으로 발정한 암컷에 수컷을 교접시키는 것을 교배라 하는데, 교미 또는 종부(種付)라 말하기도 한다.

가축을 교배시키는 방법으로는 자연교배와 인공수정(人工授精)이 있다. 자연교배는 발정한 암컷과 수컷 사이에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미행위를 말하며, 인공수정이란 수태를 목적으로 수컷의 정액을 암컷의 생식기내에 인공적으로 주입하는 인공교배 방법이다.

관리교배(管理交配)

발정한 암퇘지를 찾아낸 다음 종모돈과 교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교배를 실시하는 양돈농가에 가장 널리 보급된 교배방법이며, 선택교배라 말하기도 한다.

관리교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발

정을 확인해야 하며, 발정한 암퇘지에게 2차에 걸쳐 반복교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차 교배는 미경산돈의 경우 교배허용개시 당일에, 경산돈에서는 교배허용개시일 다음날 실시한다. 2차 교배는 1차 교배후 12~24시간 사이에 실시하면 보다 높은 수태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인공수정(人工授精)

인공수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교배 방법인데, 국내 양돈업에서는 보급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을 이용하면 돼지의 개량을 현저하게 촉진할 수 있으므로 번식돈(繁殖豚)의 생산을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교배적기(交配適期)

자연교배시 발정중인 암퇘지에게 교배를 실시하여 가장 높은 수정율(受精率)을 얻을 수 있는 시기를 말하는데 인공수정시 수정적기에 해당한다.

교배적기를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면 난자가 배란되는 시기, 배란후 난자가 수정능력을 유지하는 시간, 정자가 수정부위, 즉 난자와 결합하는 장소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정자의 수정능획득(受精能獲得)에 요하는 시간 및 정자가 암퇘지 생식기내에서 수정능력을 유지하는 시간 등이다. 이들 요인을 종합해서 검토할 때 암퇘지의 교배적기는 발정이 발현되어 수태지를 허용하기 시작한 시점, 즉 교배허용개시 시점으로부터 10~26시간(0.5~1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암퇘지가 발정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육자는 수시로 암퇘지의 허리 또는 엉덩이를 손으로 눌러보면서 교배허용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